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4

# ISSUE FOCUS



평생학습 트렌드 2023

© headway

WHAT  
edition

# ISSUE FOCUS

평생학습 트렌드 2023

ISSUE



“학습도 트렌드가 있을까?”

연말과 연시가 되면 ‘세계, 대한민국, 디지털, 특정 세대’ 등을 타이틀로 한 트렌드 보고서의 키워드가 화재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도 트렌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과정처럼 일정한 커리큘럼과 방법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교육도 격변의 시대에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이며 사회와 기술의 변화는 우리 일상의 학습 내용과 방법, 태도까지 바꾸고 있다. 이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6명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2022년 12월, 2023년을 준비하며 평생교육 분야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내용은 면대면 집담회와 비대면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 01



매년 우리 사회 변화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트렌드 보고서가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시리즈,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MZ세대 트렌드>시리즈다. 각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권정윤, 송혜윤 연구원은 각 연구소에서 제시한 올해의 트렌드가 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다.

# <트렌드 코리아 2023> 올해의 키워드와 학습

by 권정윤('트렌드 코리아 2023' 저자,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평균의 실종은 교육의 양극화, N극화를 낳는다



## 2023년 트렌드 코리아 대표 키워드 '평균실종'

매년 대한민국 사회변화를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로 소개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김난도 외, 2023)에서는 2023년 트렌드 중 가장 대표 키워드로 '평균실종'을 선정함. '평균실종'은 한 집단 혹은 사회를 설명하는 대푯값으로서 평균의 쓸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 즉, 우리 사회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 교육 분야의 평균실종 현상 1 학습 역량의 '양극화'

교육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평균실종 현상은 첫째, 학습 역량의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으로 사람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임. 코로나를 겪으며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이 양극화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코로나 세대'라고도 불리는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는 중독적인 알고리즘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적절한 지도 여부에 따라 미디어 중독 정도에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교육 분야의 평균실종 현상 2 교육 형태의 'N극화'

둘째, 'N극화' 현상임. N명의 사람이 있으면 N개의 극으로, 저마다 다른 북극성을 찾아 흩어지는 현상을 의미함.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자신의 개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평균화된 학습 서비스는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임.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청년', '노년'과 같은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으며, 같은 40대라 해도 미혼도 있고 어린 자녀, 성인 자녀를 둔 사람까지 천차만별인 상황임. 따라서 교육의 형태 역시 다양성과 개별성을 피할 필요성 대두.



## 생애주기는 연속성이 아니라 단속성! 여러 차례의 생애 변곡점마다 교육이 필요하다

### 단속성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평생교육

평균 수명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도 길어져서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됨.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비야르(Jean Viard)는 오늘날의 시대를 ‘단속(斷續)성’의 시대 (장 비야르, 2021)로 정의함. 이전과 같이 청년에서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끝나는 연속적이고 단선적인 삶이 아니라 생애1, 생애2, 생애3으로 여러 차례 직업을 바꾸고 정체성을 달리 하며 삶을 비연속적으로 변곡점을 만들며 산다는 것. 이러한 변곡점마다 교육이 필요하며, 결국 단속성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교육은 평생에 걸쳐 요구됨.

### 네버랜드 속 나이와 세대를 구분하는 교육은 구식

‘이 나이대에 무엇을 해야한다’ 식의 단일한 생애주기에 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음. 관련하여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함.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어른으로 부르기 어색해하는 ‘어른이(어른+어린이)’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마치 피터팬들이 사는 ‘네버랜드’와 같다는 의미임. 소년·청년처럼 젊게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나잇값’이란 개념이 없어짐. 교육에서도 나이와 세대 구분은 구식이 될 것임.

© Douglas Lopez

## 나에게 몰입할 이유를 주는 디깅(Digging)으로 학습 효과와 행복감까지 잡는다



© Christin Tome

###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학습 분야를 파고드는 학습의 디깅모멘텀

학습에서도 ‘디깅모멘텀 (Digging Momentum)’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함. ‘디깅’은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던 말. 수많은 음반·음원 사이에서 보물찾기하듯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곡을 발굴해내기 위해 음악에 탐닉하는 모습을 일컬음. 최근에는 음악 분야에 한정되거나 소수 마니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취미·취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신만의 광산을 만드는 디깅러들이 많아짐.

###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덕질과 덕력

‘덕질’이라 부르는 자신만의 애호 대상, 몰입 대상이 취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이 됨. 학생들은 자신에게 독특한 컨셉 (예를 들어 ‘호그 와트 학생’)을 부여하며 공부에 몰입도를 높이고, 성인 소비자들은 취향으로 모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디깅러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정을 받고자 ‘덕력’을 쌓는 식으로 학습 몰입도를 높여감.

### 미세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된 디깅모멘텀

최근 유행하는 세계관이나 컨셉놀이는 몰입할 대상과 기꺼이 몰입할 이유를 만들어줌. 이러한 몰입은 사람들의 심리적 안식처이자 ‘미세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됨. 즉, 디깅은 행복으로 나아갈 모멘텀이 됨. 그러한 의미에서 트렌드 키워드의 이름도 ‘디깅모멘텀’이 탄생함.

### 디깅은 100세 시대에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동력이 될지도

그러므로 디깅은 젊은 세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꾸려가야 하는 중·장년층들 역시 필요해짐. 여러 갈래의 단속성의 삶 속에서 생애 한 조각을 채우는 하나의 테마에 깊이 몰입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맺고 나아가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이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임.

# <Z세대 트렌드 2023> 올해의 키워드와 학습

by 송혜윤('Z세대 트렌드 2023' 저자,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배움, '갓생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 Caren Chamleau

## 일상 속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갓생 프로젝트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MZ세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기 등 소소한 목표를 실천하며 성취감을 얻는 갓생을 실천함. 이러한 갓생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

## 성찰적 배움을 통해 갓생 실천

갓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바로 '나만의 루틴 만들기'임.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 특히, 배움에 대한 루틴이 부각됨. 챌린저스, 마이루틴 등의 앱을 통해, 영어 단어 외우기, 시 필사하기 등 배움을 쌓고 영감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많음.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배움을 넘어, 요즘에는 명언이나 소설 구절, 철학적 질문을 문답하는 등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성찰적 배움으로 확대되는 중임.

## MZ세대의 성장은 하루하루가 단단해지는 것

최근에는 '달력'을 활용해서 나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함. 달력은 더 이상 날짜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물건이 아님. Z세대는 달력 또는 일력을 한 장씩 넘기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을 가다듬. 마치 '불멍'하고 '백색 소음을 듣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실감하며 안정감을 가짐. MZ세대가 느끼는 성장은 하루하루가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는 것임.

##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듬고 정리함으로써 학습과 배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갓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부 계획이나 업무 일정을 체크리스트처럼 짜고 돌아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님.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임. 꾸준한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려는 배경에는 자신의 감정을 다듬고 정리해보려는 욕구가 숨어있음. 학습과 배움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는 행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다양한 일 경험과 배움을 쌓고 기록하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시대다



수평적 성장으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Z세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주목한 Z세대 특징은 포트폴리오 세대라는 점. 수직적 성장이 아닌 수평적 성장으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특징을 가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포트폴리오화

요즘 Z세대 직장인은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사이드 프로젝트\*와 취미, 여가 활동까지 커리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데 열심임. 경력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할지 파악해 차별화된 '나'의 커리어에 집중함. 이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찾아 포트폴리오화함을 의미함. 그래서 현재 다니는 직장도 자신의 커리어 경험을 쌓는 하나의 플랫폼 정도로 여김.

Z세대의 선생님은  
과정형 인플루언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과정형 인플루언서임. 과정형 인플루언서를 자기계발 룰모델로 삼으며 그 사람의 결과보다는 그 사람의 과정을 룰모델로 하여 배움과 경력을 쌓음. 즉, Z세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원함. 또한 Z세대는 멘토링이 아닌 코칭 방식의 배움을 원함. 자신만의 커리어를 개척하기 위해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멘토보다는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또래의 사례들을 참고하고자 함.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탐색하고 응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간다는 것.

이직이 트렌드,  
대퇴직의 시대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대비

'이직이 트렌드'라고 할 만큼, 일과 직업, 직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자발적 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대퇴직의 시대(The Great Resignation)'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커리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높아지고 있음

\* 혼자 또는 팀을 꾸려 본업 외 일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는 것



## 일반인 선배의 경험 콘텐츠로 나의 일과 조직 생활을 미리 연습한다



### 요즘 세대는 온라인 콘텐츠로 미리 경험하고 배운다

무슨 일이든 콘텐츠로 미리 경험하고 배우는 시대. 요즘 세대들의 대표적인 학습 트렌드 중 하나임. 내가 궁금한 대학생활, 직장생활 등을 콘텐츠로 접하며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이 인기인데, 대학생활 끌팁이나 공부법 등을 다루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핫한 유튜브 콘텐츠 웹예능 ‘전과자’, ‘연고티비(구독자 54만)’, ‘스튜디오 샤(구독자 13만)’ 등의 채널이 대표적임.

### 갓생 유튜버의 경험을 빌어 자신의 미래 일과 생활을 연습

이 채널에 출연하는 이들은 일반인이지만, 구독자인 10대와 Z세대는 마치 대학생 인플루언서라고 인식함. 이들은 ‘갓생 유튜버’로서 그들의 취업 준비과정이나 개인사업자로 살아남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공유함. 이들의 경험을 통해 Z세대는 자신의 일과 생활을 미리 연습함.

##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는 알파 세대의 새로운 학습법 시대가 온다



### 알파세대의 새로운 학습문화를 주시

디지털 시대만을 경험한 최초의 세대인 알파세대<sup>\*</sup>의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새로운 학습문화를 주시해야 함. Z세대가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였다면, 알파세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세대로 그들이 중심이 되는 학습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

### 가상세계를 친근하게 느끼는 알파세대

요즘 알파세대 사이에서는 스펜지와 고무로 만들어진 '너프건'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실물 너프건을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이처럼 메타버스와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아이템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임. 알파세대는 이런 아이템을 통해 가상세계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됨. 이를 빠르게 학습에도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 가상 사회에서 현실 사회의 재능을 갈고 닦는 세대

보통의 초등학생 수업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일환으로 메타버스 맵을 교재로 활용하고, 컴퓨터 시간에 3D 그림판을 배움. 또한 방과후 수업으로 드론 축구교실이 열리는 등 가상 사회에서 현실 사회의 재능을 갈고닦으며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세대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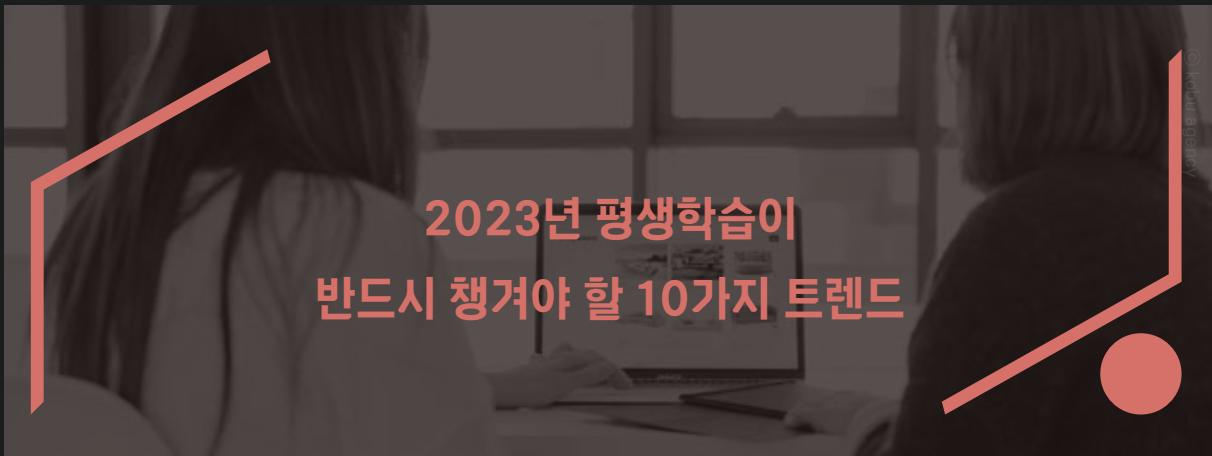
### 게임형 배움과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요즘 알파세대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사회에서 게임형 배움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함. 과거 Z세대가 영상 편집을 배우며 유튜버를 준비하듯이, 요즘 초등학생은 로블록스 게임 만드는 방법을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로블록스는 유저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게임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이 그 동력이 되고 있음.

\* 2010~2024년 사이 출생한 세대(밀레니얼 세대의 자녀).

호주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이 수년간 여러 세대를 연구하다가 Z세대를 잇는 새로운 세대를 부르는 이름이 없다는 것을 느껴 붙인 이름

## 02



2022년 12월 어느 날, 사회변화에 민감한 ‘에듀테크, 기업인재육성, 평생직업교육, 평생학습’ 분야 전문가 4명을 초대하였다. 2023년의 평생학습 트렌드를 생각해보는 집담회가 2시간동안 진행되었고, 그들의 주요 대화 내용을 다음 10가지로 발췌하였다.

\* 참여자 : 안동윤(LG전자 CHO부문 인재육성담당 사업가육성팀 책임),  
이지혜(한림대학교 교수),  
채창균(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정민(휴넷 에듀테크연구소 소장)

\* 진행자 : 김혜영(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팀장)

# 2023 평생학습 트렌드 10가지



© kobu agency

## #1 평생학습 타깃 세대 확대, 5060세대에서 3040세대까지

지금까지 평생학습 참여자의 상당수는 은퇴 후 성인 5060 나이대의 학습자들이었고, 그들을 위한 문화·교양 프로그램들이 주요 내용이었음. 그러나 평생교육계 전반에서 정책 타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 3040세대로 확대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2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시기에' 능력자에게 배우는 성인 과외 시장 성장

탈잉, 숨고, 클래스101 등 재능을 사고파는 민간 재능마켓 수요 증가. 회사 생활의 부족한 능력을 재능마켓의 능력자를 찾아 과외를 받는 2030세대 증가. 기획서 쓰는 방법, 비즈니스 이메일 쓰는 법 등 소소한 회사 업무 기술부터 빅데이터 자료 읽는 법 등 다양함. 특히, 2030세대는 직무 관련하여 사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재능마켓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여, 그 수요는 더 늘어갈 것임.

## #3 재교육(Reskill)과 능력향상교육(Upskill)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일상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등 직업 세계 기술변화에 따른 재교육(reskill)과 능력향상교육(upskill)이 필수가 됨.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민하게 일상적으로 기술을 익힘과 동시에 적용하는 식의 평생직업교육이 일상화된다는 것. 기대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상황. 평생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 수 없으며, 최소 두 번 이상의 직업이나 직종 변화가 필연적이므로, 그에 맞는 직업전환 준비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함.

## #4 강의실(Classroom) 중심의 학습에서 일상(Workflow) 학습으로 변화

에듀테크 기술의 발달으로 강의실(Classroom) 중심의 학습에서 일터와 일상생활(Workflow) 학습으로 변화. 워크플로우 러닝(Workflow learning)은 적시에 바로, 적합한 유형의 학습을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워크플로우 러닝의 적용과 관련하여 '#Micro Learning\*', #Learning Journey\*, #Learning Platform(학습플랫폼), #Learning Engagement(학습몰입)' 등의 키워드 등장

\* Micro Learning: '작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icro'에서 유래하였으며 학습자 피로를 고려하여 단일하고 짧고 간결한 단위로 학습을 설계하는 방식을 말함. 정보를 주제별, 한 입 크기의 덩어리로 나누어 학습자 관심을 높이고 유지하게 함(Giurgiu, Luminita, 2017; Leong,Sung., & Blanchard, 2020).

\* Learning Journey: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업 적용도를 높이는 학습설계 방법. 1회성 교육이 아닌 '학습-실행-학습'의 사이클로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것. 학습은 기억되고 실행되어야하는데, 학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하여 여성으로서의 교육으로 진화하는 것(충정민, 2017).

## #5 보편화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습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학습 촉진 관리' 필수

학습자도 공급자도 온라인 학습이 편해졌지만, 문제는 참여 몰입감과 교육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짐. 어떻게 하면 온라인 학습의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육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촉진 전략과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몰입을 지속해서 유지시키는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짐. 온라인 학습관리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질 만큼 학습 성패를 좌우함. 이제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못지않게 온라인 학습 촉진 관리에 주력해야 함.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학습 패턴 분석과 수료 예측으로 맞춤형 학습관리, 학습독려 등의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뱃지와 같은 학습 촉진 장치도 학습 상황에 맞게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6 점점 더 세분화하여 능력을 학습하는 스킬스테크(skills tech) 교육체제준비

역량의 단위는 매우 크기 때문에 실무 적용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더 작은 단위학습이 선호되며, 그중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는 스킬스테크(skills tech)가 대세. 앞으로 평생직업교육은 역량개발 중심이 아닌 개별화되고, 아주 세분화된 스킬개발 중심으로 운영될 것. 이미 재능마켓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소한 맞춤형 필요 능력을 개발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7 교육의 양극화 심화를 완충시키는 공공 평생교육 영역의 노력 절실

세계적으로 고학력, 저연령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교육대상에 교육정책이 집중되고 있음. 저학력, 고연령 대상의 교육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저소득과 저학력 등의 취약계층은 학습의 욕구가 있어도 시간 부족,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개인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성인교육 경비 지원과 이들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필요함. '대기업 임직원 vs 중소기업 임직원, 기업 내 핵심 인재 vs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양극화도 심화됨. 학습자의 경험과 경로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별도의 프레임워크 설계 등 직원별 개별화와 맞춤형 교육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학교교육의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성인 이후 평생직업교육 격차에 대한 공공영역의 노력이 요구됨.

## #8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이 된 지금, 그들을 위한 평생교육 고민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변화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어왔음. 그들이 50대였을 때 50플러스라는 이름의 정책들이 생겼다는 점만 봐도 그들의 영향력을 인정할 만함. 그들이 전·후세대와 어떻게 통합되고 학합하느냐가 우리 사회 안녕을 좌우하는 것이 될 것임. 평생교육 분야에서 그들을 위한 더 세심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함.

## #9 대학의 학위에 대한 가치 인식변화와 새로운 고객을 찾는 대학

지금까지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으나, 점차 학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가 작아지고 있음. 대학의 기능이 변모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중요해짐. 대학이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이 될 날이 머지 않았을 수 있음.

## #10 공공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통합하고 연결하는 역할로

재능마켓 등을 포함하여 성인교육 관련 민간의 평생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지식과 학습을 유통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 등 평생교육이라는 이름 외에 자기계발, 디지털 역량교육 등의 용어가 일반화되어 평생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나름의 질적·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 공공의 평생교육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의 분류체계를 짍아주고 정돈하는 역할, 흩어진 정보를 통합적·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역할, 인증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 연결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함.



## 우리 사회 트렌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평생학습 기술과 방법의 변화 등에 대비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 사회 트렌드를 분석하는 연구소들은 이미 2022년 커리어 확장을 파이프라인에 비유하며 N잡을 위한 직업준비의 상시화를 예견하였고, 2023년 디깅(몰입 행위), 간생,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학습 관련하여 주지해야 할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음. 평생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행복 추구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디깅(Digging)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앞으로 새로운 학습전략에 열쇠가 될 것임. 예를 들어,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한 학습설계 못지않게,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개별화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임.

앞으로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평생학습 트렌드에 줄 영향을 주시해야 함. 학습 기술과 방법에서의 변화인데, 특히 Z세대의 학습의 룰모델은 대단한 유명인,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또래와 비슷한 나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일반인이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음 10가지를 변화 현상으로 뽑음 : 고전적 평생교육 대상이 3040대까지 확대되는 현상, 성인 과외 시장 성장, 평생직업교육의 일상화, 일과 학습의 경계가 없는 워크플로우 체제로의 변화, 보편화된 온라인 학습환경의 성패를 가를 학습관리 고도화, 더 세분화되는 스킬단위의 학습체제로 변화, 교육의 양극화 심화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 노년이 된 베이부머 변화 대응, 대학 학위 가치 하락과 새로운 고객, 다양한 학습의 통합과 연결자로서 공공 평생교육 역할

# FOCUS

“앞으로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대세에 따르며 차별화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재교육보다는  
개개인의 유일성과 다양화되는 관심사를 지원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지 않을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 파트너로서  
새로운 학습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평생학습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미래를 WHO, WHAT, HOW, WHY 4가지 카테고리로 제안합니다.

\* 이슈포커스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연구, 실태조사, 트렌드·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위 자료는 참고문헌에 표기된 자료를 정리·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정리 및 편집

김혜영 팀장, 김혜연 대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 참고문헌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권정윤 외 5명(2022) | 트렌드 코리아 2023. 서울: 미래의창.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2) | Z세대 트렌드 2023: 하이퍼 퍼스널리티,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나. 서울: 위즈덤하우스.
-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 Learning Journey (학습여정)(홍정민, 2017.12.1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redmin00&logNo=221162102551> 에서 2022. 12. 7 인출
- 장 비야르(2021) | 기나긴 청춘: 어른되기가 유예된 사회의 청년들(강대훈 역). 서울: 황소걸음.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Díaz Redondo, R.P., Caeiro Rodríguez, M., López Escobar, J. et al (2021) | Integrating micro-learning content in traditional e-learning platforms. *Multimed Tools Appl* 80, 3121–3151.
- Leong, K., Sung, A., Au, D., & Blanchard, C. (2020). A review of the trend of microlearning. *Journal of Work-Applied Management*.
- Giurgiu, Luminița (2017) | "Microlearning an Evolving Elearning Trend". *Science Bulletin*. 22(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8657319\\_Microlearning\\_an\\_Evolving\\_Elearning\\_Trend/link/5975fbe50f7e9b4016b3b23a/download](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8657319_Microlearning_an_Evolving_Elearning_Trend/link/5975fbe50f7e9b4016b3b23a/download) 에서 2022. 12. 7 인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